



# 보라매



발행처 : 대한민국공군전우회, (사)공군발전협회  
Homepage: www.airforce.ne.kr / www.arokaf.co.kr

발행인 : 김은기  
E-mail: kafva-airforce@naver.com

편집인 : 염규열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36길 92  
전화: 02-825-8461 FAX: 02-825-8460

## 김은기 회장 신년사



존경하는 공군전우회와 공군발전협회 회원 여러분!  
계묘년 새해를 맞이하여 회원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지금 세계는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반복되고 있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여파와 많은 국가가 보호무역정책을 채택하고 있음에 따라 글로벌 경기가 동반 위축되며 세계 경제가 빠르게 둔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중국은 정치, 외교, 군사, 경제 등 모든 분야에서 전략경쟁을 펼쳐나가고 있고, 국제사회는 진영간 대결구도가 확산하고 있으며, 여기에 더해 미·중간의 갈등이 무역에서 국가안보를 넘어 다양한 분야에서 불확실성을 증대시키고 있는 현실이며, 이러한 국제질서의 변화가 안보환경 변화에도 큰 영향을 끼치면서 진영간 대결양상이 고착화 되어 가고 있습니다.

국내적으로는 지난해 6월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의 성공으로 세계 7위의 우주강국으로 진입하였고, 아울러 세계 최고수준의 차세대 이지스 구축함 건조 및 KF-21 시제기를 개발하여 초음속 전투기 개발국으로 등극하는 외에 특히 유럽시장에 K-2전차, K-9자주포, FA-50 전투기 등 대규모 K-방산 수출에 힘입어 세계 8위의 방산 강국으로 급부상하였습니다.

그러나 글로벌 복합위기 여파의 큰 영향을 받아 무역수지의 적자전환, 큰 폭의 금리 인상 및 소비자물가 대폭 상승 등으로 인한 가계부채/조세부담 증가, 저출산 및 고령화 심화, 젊은 세대의 취업률 저하 등으로 인한 세대간 또는 빈부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경제성장 전망까지 꺾이며 지난해보다 올해가 더 힘들게 될 가능성이 커졌고, 보수와 진보 진영간의 대립이 심화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어려운 시기에도 공군전우회는 2022년도 계획 사업들인 국립현충원 합동참배, 안보현장 견학/각종 추모행사, 친선골프대회, 일본 츠바사회 방문, 공군순직조종사부인회 초청행사, 부대 위문방문 등 주요행사를 성공적으로 마쳤으며, 그 외에 회원관리 및 안정적인 재정 확보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습니다.

그리고 공군발전협회는 지난 6월15일 '우주경쟁시대의 생존전략'이라는 주제로 학술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고 '항공우주력연구' 논문집 제10집을 발간하였으며 2018년도에 처음 시작하였던 군사학술 용역과제연구는 지난해에도 4건의 과제를 수주 완료하는 등 누적 20건의 과제를 통해 연구위원들의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공군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시하였습니다.

비록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았지만 공군전우회와 공군발전협회가 이와 같은 성과를 달성할 수 있었던 것은 회원 여러분의 높은 관심과 적극적인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하였다고 생각하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6.25전쟁후 지난 70여년 동안 한미동맹은 대한민국 발전과 함께하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지키는 핵심적 역할을 다해오는 가운데, 이제 우리나라는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하였고 지난해 창군 73주년을 맞은 우리공군은 5세대 전투기 F-35와 공중급유기, 조기경보통제기를 갖춘 첨단공군으로 성장하였으며, 국가적으로도 한국형전투기인 KF-21 시제기가 출고되어 우리가 만든 전투기로 우리의 영공을 지킬 수 있는 시대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처럼 첨단 공군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된 것은 공군을 거쳐 간 모든 공군인과 현역 공군장병들이 쌓아온 피와 땀의 결실이기에 공군인 모두가 큰 자부심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군의 이러한 발전과 무관하게 현재 우리의 안보 상황은 결코 낙관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사례를 보더라도 힘이 없으면 침략을 당하게 되고, 전쟁 상황에서 동맹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재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최근 북한은 국제정세 변화를 틈타 한반도의 정치적 군사적 변화를 바꾸려 하고 있고 자신들의 체제를 강화하면서 연이은 탄도미사일 도발과 7차 핵실험준비 및 핵무기 선제사용을 법제화 하면서 핵을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

지를 드러내고 있어 이는 한반도는 물론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매우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 정부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억제하면서 보다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안보 능력을 갖추어나갈 것'을 강조하고 그에 상응한 조치들을 해나가고 있음에 위안을 얻습니다만, 북한의 도발에 대한 UN안보리의 제재는 중·러의 반대에 무력화 되고 있어 이러한 상황을 감안한 우리의 국방태세는 과거의 틀에서 과감히 벗어나 새로운 전략, 새로운 무기체계, 새로운 지휘통제체계 등을 구상하고 혁신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북한의 핵·미사일 등 다양한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한미연합방위태세를 기반으로 "한·미·일 3국의 확장억제 공조체제를 강화"를 하는 등 '힘에 의한 평화'를 달성해 나가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럴 때 일수록 우리 공군은 북한의 도발에 대한 역제를 주도함과 아울러 미래의 잠재적 위협에 효과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여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공군전우회와 공군발전협회도 대내외 안보상황을 직시하고 회원간 화합과 단결을 통하여 국가와 공군발전을 위해 모든 역량을 결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공군전우회와 공군발전협회 회원 여러분!  
계묘년 새해에도 공군전우회와 공군발전협회는 공군 현안사업들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가용역량을 동원하여 측면 지원을 다할 것이며, 또한 회원간의 화합과 친목을 도모하고 한 단계 더 발전하기 위해 더욱 힘써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활동들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이 있을 때 가능하다고 생각하며 지속적인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공군전우회 중앙회를 비롯한 산하단체, 지부/지회와 공군발전협회의 모든 활동들이 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희망찬 한해가 되길 바라면서 '대한민국을 지키는 가장 높은 힘, 정예 우주공군'인 우리 공군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023년 1월 1일  
대한민국공군전우회/공군발전협회  
회장 김은기

## 2022년 '탑건' 김유준 대위에 공군전우회 보라매상 시상

본회 김은기 회장은 12월 20일 공군호텔에서 열린 2022년 공군작전사령부 공중사격대회 시상식에 참석하여 2022년 공군 최강의 명사수 탑건(Top Gun)으로 선발된 제11전투비행단 110전투비행대대 김유준 대위(공사 64기)에게 본회에서 수여하는 보라매상을 시상했다.

공군 최고의 조종사로 일컫는 2022년 '탑건'에 선발된 F-15K 조종사 김대위는 주기종 F-15K 590여 시간을

포함해 총 800여 시간의 비행시간 보유자로 이번 사격대회에 참가하여 '공대공 요격'과 '공대지 폭격' 부문에서 총 1000점 만점에 950점을 획득해 탑건의 영예를 안았다.

보라매상은 2009년도부터 탑건으로 선발된 조종사에게 공군전우회에서 제도화하여 상장, 상패 및 포상금 1백만원을 수여하고 있다.//





## 공군전우회 회장단 일본 츠바사회 방문

본회 김은기 회장 등 임원 9명은 일본 항공자위대 예비역 단체인 츠바사회 초청으로 11월 5일부터 8일까지 3박 4일간의 일정으로 일본을 공식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한·일 공군 예비역 단체간 교류증진을 위해 체결된 협정서에 의거 이루어진 행사의 일환으로 2004년도에 최초로 일본 츠바사회 방문단 일행이 방한한 후 격년제로 상호방문중이며 이번 한국측의 공식방문은 2005년에 이어 여덟번째로 이루어진 행사다.

방문단 일행은 11월 5일 일본 하네다 공항에 도착하여 츠바사회 사이트 회장 등 임원의 영접을 받은 후 자체계획에 의거 인근 아타미와 하코네 지역 문화탐방을 했다. 11월 6일에는 하코네에서 도쿄 오다iba로 이동 하여 문화탐방을 한 후 저녁에는 주일한국대사 주최의 만찬에 참석했다. 11월 7일에는 츠바사회측 주최의 조찬을 마친 후 일본 항공자위대 하쿠리 기지를 방문 및 JAXA 츠쿠바 우주센터를 방문했다. 그리



고 저녁에는 츠바사회측의 환영만찬에 참석 하여 상호방문 인사교류에 이어 친교의 시간을 가졌다.

11월 8일에는 후쿠지키와 스카파 JSAT 위성관제센터를 방문하여 관심사항에 대해 질의 응답시간을 가졌다.

그동안 코로나 사태 등 여러 가지 환경으로 상호교류를 중단하였다가 5년만에 이루어진 상호간의 만남은 한국공군전우회와 일본 츠바사회와의 친선을 도모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

## 사천지역 안보현장 견학

본회 김은기 회장은 10월 20일 중앙회 임원/회원 및 전국지부/지회 임원 등 130명을 초청하여 사천지역 안보현장을 견학했다.

견학단 일행은 먼저 ‘2022사천에어쇼’(2022.10.20. - 10.23) 개막식 행사에 참석하여 블랙이글스 에어쇼 관람과 항공기 전시장 및 공군홍보관을 둘러 보았으며, 이어 (주)한국항공우주산업(KAI)를 방문하여 KAI홍보영상 시청, 강구영 사장의 환영사와 김은기 회장의 격려사, 방문기념패와 기념품교환 및 항공기 생산시설을 관람한 후 오찬을 함께했다. 오후에는 제3훈련비행단에서 주관한 사천지구 호국영령 추모행사에 참석하여 호국영령들의 숭고한 넋을 기렸다.

이날 본회 김 회장은 개막식 행사에서 영



상 축하메시지를 통해 “사천시가 21세기 한반도를 수호할 KF-21 보라매 항공기를 생산하는 지역임을 고려할 때 금년도 에어쇼를 이곳에서 개최하게 된 것은 큰 의미가 있다”며, “2004년 사천항공우주산업축전으로 시작한 본행사가 국민의 큰 관심속에 사랑받는 항공축제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 공군전우회 회장단 전투부대 위문

공군전우회 회장단 7명은 12월 14일 국방의 최일선에서 영공방위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제8전투비행단, 제314 관제대대 및 제155대대 3포대를 방문해 장병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이날 방문단은 세탁기 10대와 스낵류 500박스를 방문부대에 전달했다. 또 일선에서 근무하는 장병들을 직접 격려하고 부대 주요작전 및 복지시설을 돌아보면서 부대 지휘관리에 대해 조언하고 현역 근무시절 경험담을 들려줬다.

김은기 회장은 방문부대 지휘관 참모들과 함께한 자리에서 “완벽한 영공방위 임



무 수행을 위해 열심히 근무하는 장병들 덕분에 우리 국민들이 편안하게 보낼 수 있다”며 “공군전우회 전 회원을 대표해 감사의 말을 전하며 동계 작전태세유지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 공군순직조종사부인회 초청 위로행사

김은기 공군전우회장과 박재복 공군사관학교총동창회장은 12월 7일 공군호텔에서 참석이 가능한 공군순직조종사부인회(이하 순조회)회원 22명을 초청해 위로 오찬행사를 가졌다.

김 회장은 “우리공군은 이제 첨단공군으로 발전 하였다”며 “순조회원 여러분들께서 더욱 많은 애정을 갖고 공군을 지켜봐 달라면서 연말연시를 맞아 가족 여러분에게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송우영 순조회장은 “두 단체가 항상 순조회를 배려해 주심에 감사드리고, 우리 순조회원들은 항상 공군가족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며 “위로와 격려를 해주신 것에 대해 전 회원을 대표하여 감



사 드린다”고 말했다.

순조회는 1976년 8월 창립되어 현재 약 60여명의 회원이 있으며 순직조종사들의 이름이 새겨진 공군사관학교에 건립된 ‘영원한빛 추모탑’ 참배와 어려운 회원돕기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 2022 공군작전 전승기념행사 참석

2022 공군작전 전승기념식이 10월 26일 강릉기지에서 공군참모총장, 공군전우회장과 임원/공군전우회 강릉시 지회원, 강릉시 부시장, 강원동부보훈지청장, 강릉시민과 학생 및 18전비장병 등 약 2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되었다.

공군작전 전승기념행사는 개식사, 국민의례, 전투약사, 기념사, 회고사, 축하와 참전조종사 기념/감사 전달, 강릉시립합창단 축하공연 및 공군가 제창순으로 진행됐다. 그리고 식후행사로는 의장대 공연, 블랙이글스 에어쇼 및 행사장 관람이 있었다.

공군작전 전승기념행사는 6.25전쟁당시 전투기 한 대도 없었던 우리공군은 전쟁발발 이틀후인 6월 27일 10명의 조종사를 일 본으로 보내 미군으로부터 10대의 무스탕 전투기를 인수받아 7월 2일 대구기지에 도



착한 후 바로 다음날부터 출격을 개시하였고 전열을 정비한 후 강릉기지에서 본격적인 작전을 전개하여 공군 최대전적으로 평가받는 승호리철교 폭파작전 등 혁혁한 전공을 세우는 등 6.25전쟁기간중 총 7851회의 공군작전 전승을 기념하는 행사다.

당일 오후에는 별도로 18전비 지휘관 참모와 장병 및 강릉지회 회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351고지 전투 항공지원작전 기념식”을 개최했다.//

## 사천지구 호국영령 추모행사

공군전우회와 공군본부가 주최하고 제3훈련비행단이 주관하며 사천시가 후원한 사천지구 호국영령추모행사가 10월 20일 3호비 역사전시장내 위령비 앞에서 개최됐다.

2022사천에어쇼와 연계하여 실시된 이날 행사에는 공군전우회원 130명과 3호비 장병 및 사천시장 등 약 300여명이 참석하였으며, 행사는 국민의례, 헌화 및 분향, 추모사, 추모가, 조총발사 및 묵념, 호국영령께 대한 경례순으로 진행됐다.



사천지구 호국영령 위령비는 6.25 전쟁시부터 ‘62년 9월까지 사천기지에서 작전임무 및 훈련 중 호국의 넋으로 산화한 고 김영환 장군 등 45인의 영령을 위로하고자 62년 6월 건립되었다.//



## 공사총동창회 신임 회장단, 취임 인사차 예방

2023년 1월 1일부로 취임한 정경두 공사총동창회장을 비롯한 신임 회장단 6명이 1월 2일 취임 인사차 본회 김은기 회장을 예방하여 환담을 나누었다.

본회 김 회장은 “신임 회장단의 취임을 축하하며, 상호 유기적인 협조로 예비역 단체 발전과 공군 발전을 지지/후원하는데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말했다.//



## 공군발전협회, 2022 공군정책설명회 개최

공군발전협회(이하 공군협회)는 11월 30일 공군항공안전단에서 공본 기획관리참모부장 등 현역과 공군전우회 산하단체/협력단체, 공군협회 후원업체 임원 그리고 공군협회 부설 항공우주력연구원 연구위원 등 총 61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2년도 공군정책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김은기 공군협회장 인사말에 이어 공본 기획관리참모부장의 ‘공군력 발전방향’과 공본 정책실에서 준비한 ‘한미동맹 70주년 기념사업 추진현황 및 2023년도 공군 주요 행사일정’ 등을 소개한 후 질의응답과 토의시간을 가졌다.

이날 김 회장은 “예비역 단체 역할을 제대로 역할을 하려면 공군이 어떠한 방향으로,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알아야 이 역할



을 수행할 수 있기에 오늘 같은 정책설명회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특히 이번에는 참석범위를 확대하였으며, 더 많은 사람들이 공군정책을 이해할 때 더 큰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차원에서 큰 의미가 있는 시간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 공군발전협회, ‘항공우주력연구 제10집’ 발간



공군발전협회(회장 김은기)는 공군 예비역 및 현역들의 군사 학술활동을 보다 활성화하고 공군의 발전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항공우주력 연구’ 제10집

을 12월 1일 발간했다.

연구지에는 미래국방환경에 대비한 항공우주력 발전방안(이성복 준장, 공본 전투

발전단장), 우주기술의 파괴적 혁신과 이에 따른 군집위성기반 국방체계 제언(김승조 서울대 명예교수), 우주안보 강화에 기여하는 우주 거버넌스 발전에 대한 제언(오혜, 한국국방연구원 선임연구원), 항공안전 교훈 기반의 우주군사력 안전관리 중점방안 연구(이장룡, 한국항공대 교수) 등 8편이 수록되어 있다.

학술지인 ‘항공우주력 연구’는 항공우주력과 국가안보를 중심으로한 안보전문지로서 관심 있는 국내안보전문가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 국가안보정책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임재빈 미 뉴욕지회장 내방

임재빈 미 뉴욕지회장이 11월14일 본회를 방문하여 본회 김은기 회장으로 부터 지회장 임명장을 수여받고 임직원들과 함께 환담을 나누었다.

임 지회장은 뉴욕지회의 일반현황 및 주요 활동사항 등을 간략히 보고하고 중앙회 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한 사항 등을 얘기하며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현재 뉴욕지회는 뉴욕시, 인근 뉴저지주와 커네티컷주에 거주하는 한국공군출



신 전우들로 약 300여명이 회원으로 가입되어있다.//

## 공군 6.25 출격 원로조종사에 연말 위로 선물

공군전우회와 공군학사장교회 공동주관 연례행사로 실시했던 공군 6.25 출격원로조종사 초청행사를 코로나 팬데믹 영향과 참석자 연세 및 추위 등을 고려하여 연말

위로 선물 보내기로 대체 했다.

위로 선물은 12월 2일 주소지가 확인된 11명에게 택배로 발송했다.//

## 149기 공군학사사관후보생 임관시 보라매상 시상

본회 김은기 회장은 12월 1일 공군교육사령부에서 열린 149기 학사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하여 진민택 소위에게 본회에서 수여하는 보라매상을 직접수여하고 격려했다.

이날 임관한 신입장교 181명은 약12주간 강도 높은 훈련을 소화하며 초급장교로서 갖추어야 할 강인한 체력과 전투 지휘능력을 배양했으며, 행사는 임관사령장 및 계급장 수여, 임관선서, 훈시순으로 진행됐다.//



## 공군항공과학고 1기생 동창회 발전기금 전달

공군항공과학고(이하 항과고) 1기생 동창회 신상식 회장이 10월 17일 김진홍 항과고총동창회장과 함께 본회를 방문하여 전우회 발전기금 100만원을 전달하고 김은기 회장과 환담을 나누었다.

항과고 1기생은 1972년 3월1일 183명이 임관하여 2022년에 50주년을 맞이 하였으며 코로나 사태로 50주년 기념행사를 10월 22일 대전광역시 소재 계룡스파텔에서 동문 50명을 포함한 가족 등 141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했다.

본회 김 회장은 “임관 50주년을 맞아 특별히 공군전우회를 위해 잊지 않고 발전기



금을 전달해주심에 감사드리며, 항과고 1기생의 임관 5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고 말했다.//

## 공군전우회 신임 부회장에 선임증 수여

본회 김은기 회장은 신임 이권형(예 중위, 학사 100기,부동산시행사 대표이사)부회장에게 11월 2일 선임장을, 그리고 신임 이선열(예 병장, 병 546기, 세무사)부회장

에게 12월 15일 선임장을 각각 수여했다.

김 회장은 신임 부회장들에게 본회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 공군전우회 2023년도 정기 총회 개최 안내

- 일시 : 2023. 3. 9(목) 17:00-19:00
- 장소 : 공군호텔
- 참석 : 공군전우회 정회원 (초청장 별도발송)  
전국 각 지부·지회장 및 사무국장 (초청장 별도발송)
- 내용 : 회무보고 및 안건심의



## 2022 공작사 공중사격대회 시상식



공군은 12월 20일 공군호텔에서 정상화 공군참모총장 주관으로 ‘2022년 공군작전 사령부(공작사) 공중사격대회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날 11전투비행단 김유준 대위가 탑건(TOP GUN)으로 선정돼 대통령상을 받았다. 공작사의 공중사격대회는 공군 조종사라면 누구나 꿈꾸는 무대로서 1960년 공군사격대회로 문을 연 뒤 2022년에 63회를 맞이한 역사·전통을 자랑하는 대회기도 하다. 대회는 공대지 폭격·요격 등 공중사격 과목 중심의 전투기 분야와 공중투하·탐색구조 과목의 공중기동기 분야로 나눠 진행됐다. 이번 대회에는 241명의 조종사가 출전해 그동안 갈고닦은 기량을 펼쳤다. 지난 9월 7일부터 27일까지 열린 공중기동기 분야에는 C-130, CN-235, HH-32, HH-47, HH-60 조종사 41명이 출전했다. 지난 10월 4일부터 19일까지 지속된

전투기 분야는 F-15K, (K)F-16, FA-50, F-5, F-4, KA-1 조종사 200명이 탑건을 차지하기 위한 도전을 내밀었다.

전투기 분야 종합 최우수대대의 영예는 8541부대(KF-16)와 16전투비행단 202전투비행대대(FA-50), 10전투비행단 101전투비행대대(F-5)가 선정돼 대통령상을 받았다.

공중기동기 분야 중 공중투하 부문에서는 2348부대 C-130 수송기 조종사 신지훈 대위가, 탐색구조 부문에서는 6탐색구조비행전대 231탐색구조비행대대 HH-47 헬기 조종사 조성모 소령이 각각 최우수 조종사 타이틀을 거머쥐어 국방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그리고 신영균(배우) 특별상에는 공대지 폭격 과목에서 우수한 기량을 선보인 18전투비행단 112전투비행대대 F-5 조종사 박광춘 대위에게 돌아갔다.//

## 공군, 항공우주력 국제학술회의 후원

공군이 후원하고 연세대 항공우주전략 연구원(ASTI)이 주최하는 ‘제24회 항공우주력 국제학술회의’가 10월 19일 서울 중구 웨스틴 조선 서울 그랜드볼룸홀에서 개최됐다. 이번 학술회의는 ‘우주안보와 국방우주력’을 주제로 열렸다. 김은경 연세대 부총장 개회사, 정상화 공군참모총장 환영사, 김종암 한국항공우주학회장 기조연설, 세션별 발표·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세션1에서는 ‘우주와 국가안보’를 주제로 정한범 국방대 교수가 ‘우주안보와 국방우주조직 발전방안’을, 방효충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가 ‘국방우주력을 위한 우주기술 연구개발’을 발표하며 항공우주력이 대한민국 안보 핵심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고 역설했다. 세션2에서는 한국국방연구원(KIDA) 두진호 박사가 ‘우크라이나 사태를 통해 본 국방우주력의 중요성’을, 최성환(공군대령) 공군본부 우주센터장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우주전 양상·분석 및 시사점’을 주제로 우리 군의 국방우주력 발전방향을 제시했다.//

## 항공우주법 세미나 개최

공군은 11월8일 공군호텔에서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와 공동으로 ‘제18회 항공우주법 세미나’를 개최했다. ‘미래 우주작전 수행능력 확보를 위한 법적 과제’를 주제로 우주 방위산업 발전을 도모하는 법·제도 개선 및 우주안보 규범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한 이번 세미나는 정상화 공군참모총장의 개회사, 신홍균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장의 환영사, 이현승 국회 국방위원장의 축사, 김한택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의 기조연설, 전문가들의 주제발표와 종합토론이 뒤따랐다. 정영진 국방대학교 교수는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 관련 국내외 제도 분석 및 공군의 역할’을, 그리고 김만기 KAIST 교수는 ‘우주 방위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적·제도적 제언’을, 박은진 외교부 군축비확산담당관은 ‘국제 우주안보 규범 발전 동향 및 우주안보 주도국과의 협력 방안’을, 애슐리 바우어(소령) 미 공군8전투비행단 법무실장은 ‘미국의 관점에서 본 국제 우주법의 최근 이슈’에 대해 설명했다. 발표 이후에는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토론이 이어졌다.//

## 2022 ‘사천에어쇼’

공군과 경상남도, 사천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꿈’을 테마로 공동 주최한 사천에어쇼는 10월20일부터 23일까지 40만 727명이 다녀가 성황을 이뤘다. 16회째를 맞은 사천에어쇼는 역대 최다 관람객 수를 기록했다. 이번 사천에어쇼에서는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와 호주 민간 곡예비행팀 폴베넷(Paul Bennett)의 에어쇼, 고공강하 시범, KT-1·T-50 항공기 시범비행이 펼쳐져 관람객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았다. 또 지상전시와 축하비행 등 총 80여 대의 항공기가 행사를 더욱 풍성하게 했다. 특히 고고도 무인정찰기 RQ-4B와 지난 7



월 역사적인 첫 시험비행을 마친 한국형 전투기 KF-21 보라매가 지상에서 위용을 드러내 주목 받기도 했다. KF-21의 일반 공개는 이번이 처음이다.//

## 공군, 우주작전대대 창설

공군이 우주 전문부대를 확대·개편해 국가 우주안보를 책임질 최선봉 부대를 창설했다. 공군은 12월1일 작전사령부에서 정상화 참모총장 주관으로 국방 우주력 발전 및 우주작전 역량 강화를 위한 ‘우주작전대대’ 창설식을 거행했다.

우주작전대대는 그동안 공군 우주작전을 수행해온 우주작전대를 확대·개편한 부대다. 2019년 9월 조직된 우주작전대는 전자광학 위성감시체계를 기반으로 한반도 상공을 통과하는 위성 등 우주 물체를 탐지·식별하고, 우주 자산의 충돌 위험성 및 우주 잔해물 추락 예보 등 우주영역 인식 임무를 수행해왔다.



앞으로 우주작전대대는 공군 우주작전을 전담한다. 우주 경제 강국으로의 도약을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국가우주력 발전계획’에 발맞춰 국방 우주력 발전 및 우주 안보를 실현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 공군·항우연·천문연 공동 포럼

공군은 12월 7일 서울 공군호텔에서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한국천문연구원(천문연)과 공동으로 ‘2022 열린 우주포럼’을 개최했다.

우주포럼은 민·관·군·산·학·연의 우주 분야 전문가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공적인 초소형위성체계 사업 추진과 효과적 운영방안 모색’을 주제로 진행됐다.

초소형위성체계 사업은 2020년대 후반 전력화를 목표로 국방부, 해양경찰청, 국방과학연구소를 포함한 다수 기관의 부서가 참여하고 있다.

이성복(준장) 공군항공우주전투발전단장의 개회사로 시작된 포럼은 최한석 한국



항공우주연구원 부원장과 박영득 한국천문연구원장의 환영사, 주제발표와 질의·토론 순으로 이뤄졌다. 포럼은 성공적인 초소형위성체계 사업 추진을 위한 방향성을 도출하는 데 중점을 두고 열렸다.//

## 군수사, 항공무기체계 기술발전 세미나

공군 군수사는 11월 23일 공군호텔에서 ‘항공무기체계 기술 발전 세미나’를 개최했다. ‘국방혁신 4.0 구현을 위한 항공우주 과학기술 적용 방향’을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는 국내외 항공기술, 항공전자·소프트웨어 분야 관계자 650여 명이 참석했다. 세미나는 4차 산업혁명 기반의 항공무기체계 기술 발전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2018년 시작됐다. 특히 이번 세미나는 미래 우주공군의 역할과 항공무기체계 발전 방향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무인항공기, 차세대 자동탐지 시스템 등 AI 4차 산업 기술 접목 항공무기체계 연구 현황을 공유한다는 점에서 의



미가 있다고 공군은 설명했다. 세미나는 신범철 국방부 차관 축사와 정상화 공군참모총장 환영사로 문을 열었다. 이어 윤석진 한국과학기술연구원장·김종암 한국항공우주학회장 기조강연, 항공무기체계 기술발전 관련 주제 발표 순으로 진행됐다.//